

생활돌봄 '우리동네 흥반장'

군산시, 2023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동네 흥반장'이 나선다

21일 군산시는 오는 2023년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동네 흥반장'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생활돌봄 복지서비스인 '우리동네 흥반장'은 김입준 군산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주민참여형 서비스 제공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업대상은 홀몸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복지사각지대발

굴, 생활 속 안전자금이 역할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동네 흥반장은 형광등교체, 수도꼭지 교체, 못박기 등 간단한 수리나 간단한 집수리, 카터달기, 빨래 건조대 줄 교체 등 지역자원 및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단, 재료 구입이 필요한 경우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또, 보일러 수리, 가전제품 수리, 지붕누수 및 방수작업 등 전문 작업이 필요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인터넷어 목적상 노후화된 전등, 인터넷 케이블은 소규모 주거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먼저 읍면동 공모를 통한 사업을 실시한 후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신청이 없을 경우 홀몸노인 인구 수나 장애인가구 수 등 취약계층이 많은 곳을 우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흥반장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통한 주민주도의 복지공동체를 구현,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일 읍면동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우리동네 흥반장을 통해 지역 내 주민이 스스로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도적인 주민주도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복지' 우수지자체 선정

익산시, 주민 밀착형 행정... 복지수도 '우뚝'

익산시가 7년 연속 '전국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주민밀착형 촘촘한 안전망을 갖춘 복지수도 지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복지사업 평가'에서 3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며 7년 연속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다관왕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춰 익산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과 총4천2백 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우선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사업으로 기부 식품 등 제공하는 '나눔마켓'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했다

또한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프라 강화 등 56개 사업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29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계를 운영해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체계를 정착시켰다

민관협력을 통한 '익산형 긴급지원

사업', '다이어움 나눔공간', '다이어움 밥차' 등 익산형 주민밀착형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타 지자체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 실시로 복지급여의 누수를 예방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분야에 71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경기침체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생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민·관이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다이로온 익산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금강미래체험관, '한국관광공사 친환경 여행지' 선정

군산시는 21일 '금강미래체험관(구 금강철새조망대)'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추천 여행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추천을 거쳐 한국관광공사에서 탄소중립 실천·친환경 생태 탐사·친환경 가치확산의 세 분야에 대해 전국 28개소를 선정했다

금강미래체험관은 친환경 생태 탐사 여행지 분야에 선정돼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 여행정보포털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 소개된다

금강미래체험관은 금강의 생태와 기후 위기를 소재로 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생태 체험시설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수업 사례 공모 우수상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1일 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북권역 원격지원센터 사업 참여 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권역 내 원격수업 우수사례 발굴과 대학의 원격수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블라워드 기반 교육 플랫폼 H-HUB를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 주제로 H-HUB를 활용한 원격수업 모형과 H-HUB 기반 원격수업 적용 사례 사제간에 Open UP! 공부할 땐 Cheer Up!의 내용으로 공모전에 출품하여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은영 연구원은 "대학의 수업 형태가 다양화되었으며 첨단기술 발달을 통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례발굴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올해 10대 시정뉴스 1위... 신혼부부 · 청년 내집마련

'2022년 익산시 주요 10대 뉴스' 선정

익산시의 올해 시정 최고 뉴스로 '신혼부부, 청년 내 집 마련 책임진다'가 선정됐다

시는 올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요 이슈들을 모아 시정 공무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익산시 주요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1위인 '신혼부부 · 청년을 위한 내 집 마련'은 주택 임차와 구입비 대출이자와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패키지'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3% 및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을 지원해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뒤이어 전국 최대규모 20%의 혜택을

내년까지 이어가는 '익산다이어움 카드'와 목욕노인·홀몸 장애인 등 취약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AI발 벗·케어 로봇 보급'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KTX익산역과 연계한 5개 노선이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지구로 지정'돼 시민들로부터 교통도시로의 도시 위상을 떨쳤다는 평가를 얻었다

5위는 익산시 정부 공모사업 1000여 원 돌파가 선정됐다

시는 올해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에도 교통안전 체험센터, 국립 호남권 청소년상담센터 유치 등 수백억대 정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국책사업 공모 분야

전국 최강의 면모를 보여줬다

6위는 정현을 시장 득표율 69.97%로 '익산 최초 3선 시장 당선', 7위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소통의 시간을 가진 '우리동네 행복버스'가 차지했다

정현을 시장은 민선 8기 첫 행보로 시민 의견을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당선 이후 8월까지 행복버스에 올랐다

29개 읍면동을 방문한 정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700여 개의 건의 사항을 제안받으며 현장 중심의 공강 행정을 펼쳤다

이밖에 8위는 '대한민국 제조 청년 시정 개편'과 9위에는 수수료 0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확 낮춘 '익산다이어움 택시'가, 마지막 10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재난관리평가 전국 1위 달성'이 차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지사 개발 섬유명장 탄생... 김강훈 쌍영방직 대표

익산시가 지역 전통산업을 이끈 섬유명장으로 한지로 한지사(실)를 개발한 김강훈 쌍영방직주식회사 대표가 선정됐다

시는 21일 시정 사회의실에서 익산시 명장 인증서 수여식 개최했다

시 명장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심사를 거쳐 선정됨에 따라 연구활동비 지원, 홍보책자 제작 및 시 홈페이지 등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익산시 명장은 지역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조례를 제정해 석공예, 섬유, 귀금속, 이·미



용의 4개 부문에서 매년 명장을 선정해 왔으며, 올해 선정된 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김강훈 명장은 지난 1987년 쌍방울 입사를 인연으로 30여

년간 실에 대한 열정으로 발명특허 8건을 등록하였고 2004년에는 한지사 발명을 통해 전통 한지를 친환경 기능성 섬유로 재탄생시켜 대중화에 성공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선정되었다

김 명장은 "긴 시간동안 섬유산업에 종사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익산시 명장으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자긍심을 갖고 섬유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친환경 섬유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섬유의 소중한 가치를 세계화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청렴·폭력예방 교육... 투명성 제고

군산시의회의(의장 김영일)가 지난 20일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군산시의회의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의회 사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하중삼 전문강사의 반부패 청렴 교육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오영렬 위촉강사의 4대폭력 예방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법·청

탁금지법의 이해, 국민심서로 보는 청렴의 정의와 공직자 윤리, 가정폭력·디지털성범죄·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구제 방법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김영일 의장은 "공직자가 우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청렴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교육이 깨끗한 조직 운영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신뢰받는 군산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